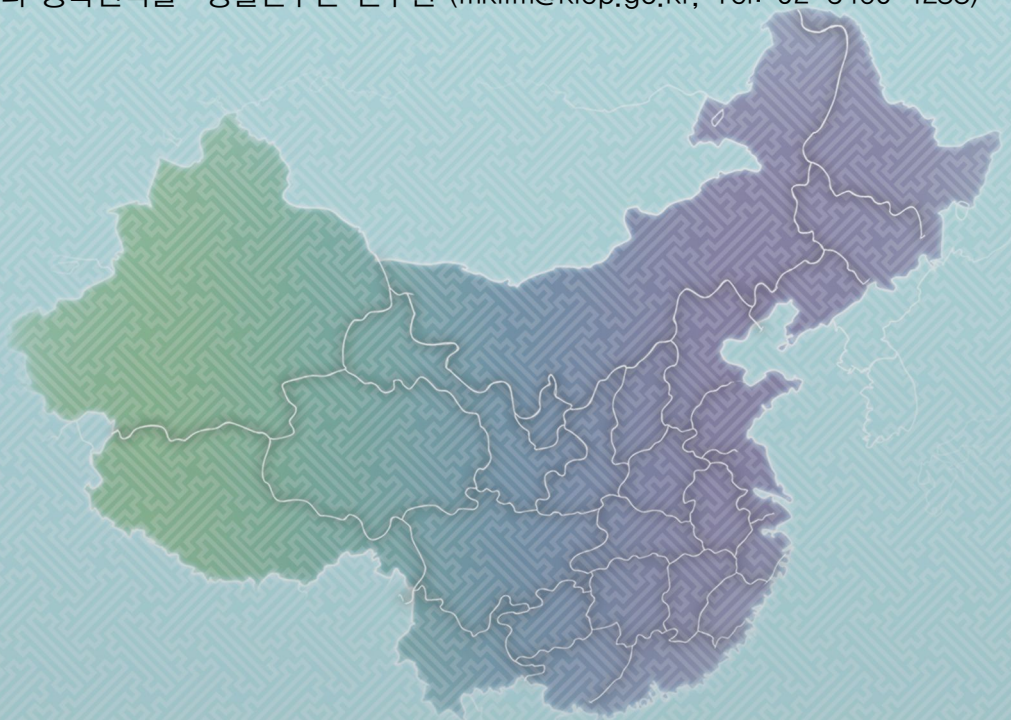


창지투(長吉圖)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훈춘(琿春)을 중심으로

김부용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furongjin@kiep.go.kr, Tel: 3460-1282)

임민경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mklim@kiep.go.kr, Tel: 02-3460-1288)



차 례 ●●●

1. 창지투 개발사업의 배경과 내용
2. 창지투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3. 한국기업 진출 현황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창지투 개발사업은 지린성(吉林省)의 ‘창춘(長春)-지린(吉林)-두만(圖們, 투먼)강 일대’를 연계해 이를 동북지역,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급 프로젝트임.
 - 이 사업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창지투 지역의 경제규모를 2008년의 4배까지 확대하고, 이 지역의 국제협력과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창지투 개발사업의 핵심 과제는 주변국과 연계한 국제 운송통로 구축이며, 이를 통해 창지투 지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대외 연계형 국내발전전략으로서 창지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최근 중·북한, 중·러시아 간 경제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음.
 - 라선특구 공동 개발, 인프라 개선, 지하자원 개발, 인력 이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연결통로 구축, 에너지자원 개발 및 송유관 건설, 노무, 관광 등의 분야에서 중·러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중국의 창지투 개발사업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음.
 - 남북 경협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점, 발전 잠재력이 큰 미개척시장이라는 점,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 등은 한국의 동북지역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은 한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향후 한국은 창지투 지역 진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두만강 지역 개발에 동참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창지투 지역은 인프라와 물류환경이 개선되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동북아 협력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1. 창지투 개발사업의 배경과 내용

- 창지투 개발사업은 지린성(吉林省)의 ‘창춘(長春)-지린(吉林)-두만(圖們, 투먼)강 일대’를 연계해 이를 동북지역,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급 프로젝트임.
- 창지투 개발사업은 지린성 창춘시와 지린시의 일부 지역 및 두만강 일대(연변조선족자치주)를 연결하는 중국 동북지역의 중점 개발사업으로 2009년 중국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 시작되었음.¹⁾

그림 1. 창지투 개발계획의 주요 지역



자료: 「창지투의 거점 지린성」 중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는 지린성, (2012. 6. 18), 『아주경제』.

- 창지투 개발사업은 지린성의 주요 도시 연결과 인프라 확충,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지린성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동북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임.
- 동북지역은 계획경제 시기 중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발전 축이 연해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경제발전에 뒤처졌는데, 이에 중국정부는 이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동북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1) 공식 명칭은 「창지투를 개발개방 선도구로 하는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계획요강(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이며, 2009년 8월 정식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음.

- 동북 3성 내에서도 내륙지역에 위치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은 랴오닝성(遼寧省)과의 경제적 격차가 큼.²⁾
-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창지투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두만강 개발사업³⁾과 연계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변경지역 개발을 선도하고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한다는 구상임.
- 북한 북부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구를 이용하여 지린성(및 헤이룽장성)이 해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借港出海)하고자 중국은 창지투 개발사업과 연동하여 두만강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창지투 개발사업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2020년까지 창지투 지역의 경제규모를 2008년의 4배까지 확대하고, 이 지역의 국제협력과 개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중화학공업에서의 우위와 혁신에 기반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을 늘리며, 농업의 현대화와 특색화를 추진할 계획임.
- 자동차, 석유화학, 농산물가공, 전자정보, 합금 및 전자재, 장비제조, 바이오, 신소재 등 8대 산업단지 건설을 제시함.
- 동시에 물류, 관광, 문화, 서비스 외주, 전시, 금융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업의 발전을 강조함.
- 또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일체화 추진을 위한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임.
- 특히 북한, 러시아와의 교통망 연결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2009년 12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발표한 12개 대외통로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0년까지 북·중·러 교통망 연결 및 개선을 위해 총 173억 5천만 달러가 투자될 계획임.⁴⁾

■ 창지투 개발은 지린성의 중심 도시인 창춘시와 지린시를 배후지로 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한 연지(延吉), 룡징(龍井), 투먼(圖們)을 개방의 전초지로 하며, 국경도시인 훈춘을 개방의 창구로 하는 구도로 추진할 계획임.

2) 2011년 GRDP(지역내총생산)의 경우 지린성은 1조 569억 위안, 헤이룽장성은 1조 2,582억 위안으로 2조 2,227억 위안에 달하는 랴오닝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음. CEIC Database(2012년 12월 7일 검색).

3) 두만강 개발사업은 두만강 하류지역의 경제 개발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유엔 개발계획(UNDP)의 주도로 출범한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초기 명칭은 TRADP(두만강지역 개발계획)였음. 2005년 개발범위가 중국, 북한, 러시아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와 부산 지역, 몽골까지 확대되며 GTI(광역 두만강 개발계획)로 전환됨. 초기 회원국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었는데 2009년 11월 북한이 탈퇴하면서 2012년 현재 4개국임.

4) 州發改委(2009. 12. 15),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實施方案任務分解表.

- 창춘시와 지린시의 일체화를 추진하여 중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선진 제조업기지로 육성하며, 대외 개방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표 1. 창지투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지역	△ 창춘시: 창춘시 도시지역, 더후이(德惠)시, 지우타이(九臺)시, 농안(農安)현 △ 지린시: 지린시 도시지역, 자오허(蛟河)시, 융지(永吉)현 △ 두만강 일대: 연변조선족자치주 (이 지역의 총 면적은 약 3만km², 인구는 약 770만 명으로 각각 지린성 전체의 1/3을 차지하며, GRDP는 지린성의 절반가량을 차지함.)
발전목표	△ 1단계: - 2012년까지 2008년 GRDP의 2배 달성* - 대외통로 건설의 현저한 성과 취득 △ 2단계: - 2020년까지 2008년 GRDP의 4배 달성 - 종합 운송통로 구축 완료 및 물류의 원활화 달성 - 동북지역의 중요한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
개발구도	△ 중심 도시인 창춘시와 지린시를 지역발전의 배후지로 함. - 창지 일체화 추진 - 중국 내에서 경쟁력 있는 선진 제조업기지로 육성 - 대외 개방의 플랫폼 역할 수행 △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한 옌지(延吉), 룡징(龍井), 투먼(圖們)을 개방의 전초지로 함. - 옌룽투 일체화 추진 - 가공, 물류, 관광 및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시스템 구축 - 국가급 개발구 건설 △ 국경도시 훈춘(琿春)을 대외개방의 창구로 함. - 러시아, 일본, 한국 및 홍콩 산업단지 건설 - 주변국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 - 투자, 무역 및 인원 왕래 절차 간편화
10대 중점업무	△ 국제 운송통로 구축 △ 산업협력단지 건설 △ 국제 협력과 교류 플랫폼 구축 △ 종합보세구와 수출가공구 건설 △ 초국경 경제협력구 건설 △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 과학기술 혁신 △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 △ 정책시스템 완비 △ 지린성 발전 견인
지원정책	△ 토지: 건설용지 공급 증가 및 중점 프로젝트 건설용지 보장 △ 행정절차: 건설 프로젝트 우선 심사·비준 △ 융자: 중점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한 자금 집중 지원 및 우선 지원 △ 금융기관 유치: 국내외 금융기관의 지역 내 입주 격려 △ 인재: 인재 육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주*: 지린성의 GRDP는 2008년의 6,426억 위안에서 2011년에는 10,531억 위안으로 늘어나, 2012년에 10% 성장을 한다고 가정하면 2배라는 목표에 거의 근접함.

자료: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2009),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開放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 및 吉林省人民政府(2009),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開放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實施方案)」에서 정리.

창지투(長吉圖) 개발의 현황과 시사점: 훈춘(琿春)을 중심으로

- 창춘시는 자동차, 농산물가공, 궤도차 3대 기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장비제조,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전자정보, 신소재 등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하며, 싱룽(興龍)보세구를 포함한 8대 기능구로 구성된 창춘동북신구를 건설함.
- 지린시는 화학, 자동차, 야금, 탄소섬유, 장비제조 등의 우위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물류, 전자재,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등의 산업도 적절히 발전시키고, 지린북부공업신구 건설을 추진하며, 내륙항을 건설함.
- 엔지, 룡징, 투먼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가공·물류·관광·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가급 개발구를 건설함.
- 일체화를 통해 도시화율을 높이고, 자원 우위에 입각하여 철강, 석탄, 목제품, 경공업, 방직업, 식품 등의 가공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물류, 관광, 첨단기술 산업을 발전시키며, 초국경 경제협력을 강화함.
- 훈춘에는 러시아, 일본, 한국 및 홍콩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주변국과 연결하는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며, 투자와 무역 및 인원 왕래 절차를 간편화함.

■ 창지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토지, 행정절차, 융자 분야 등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건설용지 공급을 늘리고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설용지를 보장해줌.
-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하고 비준함.
- 중점 프로젝트와 기업에 대해 자금 집중 지원 및 우선 지원을 실시함.
 - 인프라 건설 관련 중점 프로젝트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
 - 대외경제기술협력기금⁵⁾과 대외무역발전기금⁶⁾은 중점 프로젝트와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동아시아협력기금⁷⁾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린성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창지투 지역 내 수출화물에 대해 직통 통관 허가를 실시함.⁸⁾

5) 기업의 대외 경제기술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투자, 농·림·어업 협력, 노무협력, R&D 협력, 설계·자문 협력 등 대외 경제기술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중앙 재정 예산항목임.

6)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 재정 예산항목으로 대부분 유상사용 관리방식을 취하며, 수출기업의 경영성 투자에 주로 사용됨.

7) 아시아 각 국가와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중앙 재정 예산항목임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협력 메커니즘 하에 조직된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및 전문연구(참여국은 3개 이상) 지원에 사용됨.

8) 이에 따라 창지투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지역 내 세관을 거쳐 수출되는 화물은 생산지 검사만 받고 세관 검사는 생략돼 통관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듦. 吉林出入境检验检疫局(2010. 5), 「出口貨物區域直通放行管理辦法(試行)」.

2. 창지투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가. 추진 현황

1) 창지 지역

■ 창춘시와 지린시를 묶는 일체화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10년 7월 창춘시와 지린시는 일체화 발전전략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인프라 건설, 산업, 개발구 건설, 환경 보호,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연결을 강화하기로 함.
 - 이 같은 협의에 따라 창춘시는 산업을 동북지역으로, 도시공간을 동부지역으로 확장하고, 각종 요소를 창지 접경지역으로 집결시키며, 창춘동북신구 건설을 가속화하기로 함.⁹⁾
 - 지린시는 산업과 도시 발전의 공간배치에서 남북 2개 도로를 따라 창춘시 쪽으로 접근하고, 북부공업신구 건설을 촉진하며, 하다완(哈達灣) 노후공업구 개조와 이전 작업을 실시하기로 함.¹⁰⁾
- 이에 일련의 교통 일체화 및 산업 관련 중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2010년 12월 창춘-지린 간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운행시간이 1시간 48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됨.
 - 창춘시 동북쪽에 위치한 룡자(龍嘉)국제공항 1기 확장공사가 2010년 11월 완공됨.
 - 창춘동북신구가 건설되고 있고, 자동차, 농산물, 궤도차 3대기지가 초보적인 형태를 갖추었으며, 완성차 300만 대 생산, 공업용 알코올 100만 톤 생산 등 중점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 지린북부공업신구가 건설되고 있고, 하다완공업구 개조 및 이전과 관련된 사전 평가와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정유 천만 톤 생산, 에틸렌 백만 톤 생산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 2008년 12월 창춘시 내륙항이 완공되어 다롄(大連)항에 대한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2011년 11월에는 지린시 내륙항 건설도 완공되어 정식 운영에 들어감.¹¹⁾

9) 新華網(2010. 7. 3), 「長吉兩市簽署合作框架協議共同推動“一體化”發展」.

10) 『吉林日報』(2012. 9. 6), 「長吉一體化逐步變為現實」.

11) 내륙항은 내륙 도시에 항구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으로, 물과 선박이 없는 항구라 하여 무수(無水)항이라고도 함. 자세한 설명은 김부용 외(2012), 「한중 경제협력 20년 회고와 전망: 동북 3성」, 중국성(省)별동향브리핑 제12-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2) 옌룽투 지역

■ 옌룽투 지역의 일체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세 도시 간 대중교통 이용 통합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투먼시 고등학교의 경우 옌룽투로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음.
- 옌지시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공업단지와 옌지시고신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산업단지, 에너지산업단지, 인삼산업단지, IT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룡징시 카이산툰(開山屯) 철도 세관과 호시무역구 건설 사전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싼허(三合) 세관 화물검역 통로와 감독관리창고가 운영에 들어갔으며, 투먼경제개발구에 변경경제협력구를 설립하는 사전공사가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옌룽투 지역과 창지 지역을 잇는 인프라가 개선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건설 중임.

- 2010년 9월 창춘-지린-자오허(蛟河)-둔화(敦化)-안투(安圖)-옌지(延吉)-투먼(圖門)-훈춘을 잇는 고속도로가 개통됨.¹²⁾
- 2010년 10월부터 이 구간(창춘-지린 구간 제외) 고속철도 건설이 착공에 들어가 2014년 완공될 예정임.¹³⁾
 - 총 연장이 359km인 이 고속철도의 투자액은 416억 위안으로 지린성 사상 최대규모의 철도사업임.
 - 이 고속철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0km로 개통 시 창춘에서 훈춘까지 2시간 반이 소요될 전망이다.¹⁴⁾
 - 또한 지린-창춘, 하얼빈(哈爾濱)-지린, 하얼빈-다렌 등의 고속철도와 연결돼 중국 동북지역의 철도 교통망이 크게 정비될 전망이다.

3) 훈춘 지역

가) 훈춘 국제협력시범구 설립

- 2012년 4월 국무원은 지린성 훈춘에 ‘중국 두만강지역(훈춘) 국제협력 시범구(中國圖們江區域(琿春)國際合作示範區, 이하 훈춘 시범구)’ 설립을 비준함.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훈춘 시범구는 총 면적 약 90km²로 국제산업협력구(國際產業合作區), 변경무역협력구(邊境貿易合作區), 중·북경제협력구(中·北經濟合作區), 중·러경제협력구(中·俄琿春經濟合作區)

12) 둔화부터는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속함.

13) 『新文化報』(2010. 10. 31), 「琿春到長春只需2.5小時」.

14) 과거 창춘에서 훈춘으로 갈 경우 기차로 8시간이 걸려 투먼까지 간 다음 다시 투먼에서 훈춘까지 1시간가량 버스를 타야 했으며, 2010년 개통된 창춘-훈춘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5시간이 걸림.

4개 구역으로 구성됨.

- 국무원은 해당 시범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창지투 지역과 비슷하게 통관절차 간소화, 융자,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기로 함.
- 중국정부가 권장하는 지역 내 투자 프로젝트이며, 중국에서 생산 불가한 설비와 그 부품을 수입할 경우 규정된 범위에서 관세를 면제함.

■ 훈춘 시범구는 창지투 개발사업을 심화하는 차원에서 설립되었으며, 중국의 두만강 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됨.

- 훈춘은 창지투 개발사업의 최전선에 위치한 도시로서, 창지투 지역에서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훈춘의 개방이 필수적임.
- 훈춘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중·북·러 3개국 국경이 맞닿은 도시이며, 한국, 일본과는 바다로 인접해 있음.
- 중국과 한국 동해안, 일본 서해안 및 북미, 북유럽까지의 최단거리 지역이어서 육지로 막힌 중국 동북지역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임.

그림 2. 훈춘의 지경학적 위치



자료: 「中, 나진 통해 동해안 진출 임박...일까지 운송, 12일서 1일로 단축」 (2012. 8. 21), 한국경제.

표 2. 훈춘과 주변국 항구와의 거리

항구	거리
라진항 (북한)	48km
청진항 (북한)	72km
포시에트항 (러시아)	42km
자루비노항 (러시아)	63km
블라디보스토크항 (러시아)	160km
부산항 (한국)	750km
니가타 (일본)	850km

자료: 각종 언론자료 정리.

나)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1) 북·중 경험

■ 창지투 개발사업 추진으로 라선특구 공동개발, 인프라 개선, 지하자원 개발, 인력 이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라선(및 황금평) 특구 개발에 대한 세 차례 북·중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라선특구 개

발이 탄력을 받게 되었음.

- 2010년 1월 북한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보완하였으며, 2011년 12월 이 법을 재차 수정·보완함.¹⁵⁾
- 2011년 6월 북한과 중국은 라선특구 공동개발 착공식을 열었음.
- 공동개발을 통해 라선특구를 원자재공업, 장비제조, 첨단기술, 경공업, 방직업, 현대화된 농업을 발전시켜 북한의 선진 제조업기지, 동북아 국제물류센터 및 역내 관광센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임.
- 라선특구 개발을 위해 중국은 항만, 도로, 발전소 등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라진항 부두 사용권 확보로 동북지역에서 생산하는 광물, 곡식 등 물자를 라진항을 통해 중국 남부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¹⁶⁾
- 중국은 2008년 라진항 1호 부두의 10년 독점 사용권을 획득하였으며, 보수 및 확장 공사를 거쳐 이미 연간 100만 톤의 하역능력을 갖추.
- 2010년 12월 중국은 추가로 라진항 4~6호 부두를 건설해 50년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함.

■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측 주도로 인프라 건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2011년 4월부터 훈춘과 라진항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 포장공사에 나섰으며, 2012년 8월 공사가 완공되어 운행시간이 종전의 90분에서 40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됨.
- 늘어나는 교역량과 인적 왕래를 감당하기 위해 훈춘 취안허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대교 설계탐측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초 착공될 예정임.¹⁷⁾
- 이에 따라 새로 건설되는 신두만강대교는 북·중을 오가는 화물차 통행에 주로 이용되고, 인근에 있는 기존의 두만강대교는 관광 및 여객운수 통로로 사용될 예정임.
- 2012년 10월 말 중국은 북한 라선지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훈춘에서 라선까지 약 100km 길이의 송전선로를 2015년까지 건설하기로 함.¹⁸⁾
- 라선지역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고¹⁹⁾ 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춘에서 라선까지 66kv의 송전선 97.8km를 건설하고, 라선시에 66kv의 변전소를 하나 건설할 계획임.

15)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반영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수정·보완의 차원을 넘어 신규 제정 수준으로 개정되었으며, 「외국투자관계법」 전반의 수정·보완도 병행되었음. 배종렬(2012. 8. 29), 「동북진흥전략으로 본 북·중 경제협력」,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주최 전문가 간담회자료.

16) 라진항 이용 전 중국 동북지역의 물자는 도로를 통해 다롄으로 운송된 후 다시 선박편으로 상하이로 운송되는 데 일주일 이상 걸렸으나, 라진항을 이용함으로써 상하이까지 3일로 단축됨. 현지 출장 기업 인터뷰(2011. 6).

17) 『연변일보』 (2012. 10. 12), 「권하 새 국경교 설계탐측 가동」.

18) 中國廣播網(2012. 10. 26), 「國家電網擬對朝鮮跨境供電項目進入啟動階段」.

19) 라선특구는 지난 5년 동안 전력수요 증가율이 40%를 넘고 있음.

- 참고로 창지투 개발 관련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점 프로젝트에는 북한의 라진항 및 청진항으로 통하는 도로, 철도, 교각 등 인프라 건설이 다수 포함돼 있음.

표 3. 창지투 개발 관련 대외통로 프로젝트 중 북한과 관련된 프로젝트

구분	프로젝트명	길이	예산	완공연도
고속도로	바다오(八道)-싼허(三合)-청진 고속도로 건설	47km	28억 위안	2015년
	훈춘-취안허-라진 고속도로 건설	39km	23억 위안	2015년
	허룽(和龍)-난핑(南坪)-청진 고속도로 건설	50km	30억 위안	2015년
철도	투먼-남양-두만강-햇산 철도 개조	126km	24.3억 위안	2020년
	투먼-청진 철도 개조	171.1km	20억 위안	2020년
	허룽-난핑-무산 철도 건설	53.5km	16억 위안	2015년
	투먼-라진 철도 개조	158.8km	12.7억 위안	2020년
	카이산툰(開山屯)-삼봉 철도 건설	2.5km	1.5억 위안	2020년
도로	취안허, 투먼, 사튀즈(沙陀子), 카이산툰, 싰허, 난핑 국경 세관 다리 건설	2,152km	5억 위안	-

자료: 『州發改委(2009. 12. 15),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實施方案任務分解表』.

■ 이 밖에 자원개발 분야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의 인력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음.

- 중국 투자유치를 위해 북한의 외자유치 총괄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는 베이징에 조선투자사무소를 설립하여 2011년부터 활동해오고 있음.
 - 2012년 들어 중국과 북한은 북한 내 광산 3곳을 합작 개발하는 계약을 맺음.²⁰⁾
- 북한 노동자의 중국시장 유입이 최근 북-중 경협에서 주목받고 있음.
 - 2012년 5월 북한 인력이 중국으로 첫 공식 수출된 이래 9월 말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투먼과 훈춘 2개 도시에 3백여 명이 유입되었으며, 고급 IT 인력의 경우 중국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²¹⁾

20) 조선투자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기업 대표 일행이 금광 한 곳과 철광 두 곳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수행한 뒤 투자 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현재 설비구축 단계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21) YTN(2012. 9. 30), 「북한 인력, 중국 투먼훈춘에 속속 고용」.

(2) 중·러 경험

- 최근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창지투 지역과 극동지역 간 상호 연계한 발전전략 및 대외 연계통로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창지투 개발에서 국제물류 운송통로 구축이 핵심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역시 중요한 사업임.
 - 1997년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를 이용하여 중국 화물을 수송하는 건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4월 훈춘-자루비노-속초 간 해륙 복합운송항로가 개통됨.²²⁾
 - 2012년 6월에는 훈춘과 러시아 카메소와야를 잇는 철도가 다시 운영됨에 따라 훈춘-블라디보스토크-부산-니가타를 연결하는 4개국 복합운송항로가 개통됨.
- 연변조선족자치주가 발표한 대외 통로 건설 프로젝트에는 러시아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포함하고 있음.
 - 훈춘의 창링즈(長嶺子)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춘화분수령 세관 건설사업 등임.

표 4. 창지투 개발 관련 대외통로 프로젝트 중 러시아와 관련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길이	예산	완공연도
훈춘-창링즈-블라디보스토크 고속도로 경내구간 건설	14km	8억 위안	2015년
훈춘 춘화분수령(春化分水岭) 세관 건설	-	2억 위안	2020년
중·러 인접지역 교통 인프라 협력 (훈춘 철도 세관 확장)	-	3억 위안	-

자료: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圖爲開發開放先導區』實施方案任務分解表」(2009. 12. 15), 『州發改委』.

-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송유관 건설, 노무,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 중이며, 향후 이러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협상을 몇 년째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양국 기업들은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계약을 체결하였음.²³⁾
 -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서부노선’을 통한 공급방안을 집중 협의하고 있으나, ‘동부노선’도 논하고 있음.²⁴⁾

- 22) 그러나 운영 선사인 한국 동춘항운회사의 재정난과 2010년 10월 속초항을 출항하던 선박이 방파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항이 2년 넘게 중단되다 신규 선사인 대아항운이 2012년 11월 운항선박을 정식으로 계약함에 따라 2013년 초부터 항로가 재개될 예정임. 「중국 훈춘 ‘북방항로’ 운항 재개에 기대감」(2012. 12. 5), 『연합뉴스』.
- 23)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CNPC사와 러시아 Transneft사 간 체결한 중·러 국경지역의 동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 건설 협정임.
- 24) ‘서부노선’은 러시아 서시베리아에서 중국 북서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며, ‘동부노선’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임. 「러시아-중국, 에너지 협력 강화할 것」(2012. 7. 9), 『아시아투데이』.

- 2009년 9월 중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 협력 계획요강(2009~18)」에는 창지투 선도구와 러시아 극동지역 간 석유, 천연가스 개발협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됨.²⁵⁾
- 최근 지린성의 노동집약 업종이 극동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극동지역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는 벌목공과 농업 종사자, 생활필수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주로 진출하였음.
- 그러나 최근 도소매업 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연해주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진출이 크게 증가함.²⁶⁾
-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온 북·중·러 변경지역에서 관광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 2012년 5월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 라선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이 개시되었으며, 현재 북·중·러 국제자유관광 구 사업은 지린성 관광산업의 중점 사업임.

(3) 중·몽 경협

■ 몽골의 자원이 내몽골자치구를 거쳐 창지투 지역으로 연계되도록 물류통로 구축을 추진 중임.

- 현재 중국과 몽골 간 물류통로는 주로 우란호터(烏蘭浩特)-자민우드(Zamyn-Uud) 구간이며, 동북 지역의 경우 주요 물류통로가 없음.
- 중국은 창지투 개발계획에서 몽골과의 교통물류통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009년 9월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아얼산(阿爾山)과 몽골 초이발산 철도건설에 대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으나,²⁷⁾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총 길이 443km에 달하는 아얼산-초이발산 철도노선이 개통될 경우 초이발산에서 훈춘에 이르는 중·몽 대통로가 구축됨.²⁸⁾

25)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발표한 창지투 선도구 관련 100개 중점 프로젝트에는 훈춘시에 천만 톤급 석유가공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州發改委(2009. 12. 15), 「中國圖們江區域合作開發規劃綱要-以長吉圖為開發開放先導區」實施方案任務分解表」.

26) 심상형(2012), 「중국 경공업, 극동지역에서 기회를 찾다」, 『친디아저널』, Vol. 74. (October)

27) 內蒙古廣播網(2009. 9. 25), 「中蒙“兩山鐵路”合作意向書在興安盟簽訂」.

28) 경유 구간은 초이발산-아얼산-바이청(白城)-창춘-지린-투먼-훈춘임.

나. 성과

- 창지투 개발사업 추진 이후 투자확대에 힘입어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2011년 창춘시, 지린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성장률은 모두 지린성 전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였음.
-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성장률이 15.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 증가에 기인함.
- 2011년 연변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1.8%로 창춘시나 지린시보다 높고, 특히 FDI(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68.5% 증가하였음.

표 5. 창지투 지역의 주요경제지표(2011년)

지표	창춘시	지린시	연변조선족자치주	지린성
GRDP(억 위안)	4,003	2,208	652	10,531
성장률(%)	13.3	14.3	15.4	13.7
1인당 GRDP(위안)	52,649	50,913	29,782	38,321
증가율(%)	12.9	-	15.3	13.4
고정자산투자(억 위안)	2,433	1,499	507	7,442
증가율(%)	30.3	26.9	31.8	30.3
1, 2, 3차 산업 비율	7.2 : 52.3 : 40.5	10.0 : 50.5 : 39.5	9.3 : 50.0 : 40.7	12.1 : 53.2 : 34.7
대외무역액(억 달러)	173.4	12.7	18.6	220
증가율(%)	31.2	50.2	19.5	30.9
FDI(억 달러)	7.7	-	1.0	14.8
증가율(%)	10.7	-	68.5	15.7

자료: 2011년 지역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

- 특히 훈춘시범구 설립으로 훈춘시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음.

- 훈춘시범구 건설 첫 해인 2012년 훈춘시는 총 206개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였는데, 총 계약투자액이 414억 위안에 달하고, 실제 투자된 금액은 89.6억 위안에 달함.²⁹⁾
- 2012년 연간 실제투자 예상금액은 전년대비 28%가량 늘어난 11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훈춘시범구에 대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2012년 훈춘시 GRDP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125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³⁰⁾

29) 「훈춘 투자유치 활성화 국제합작시범구건설 파죽지세」(2012. 11. 22), 『연변일보』.

30) 「훈춘 경제 사회 “어거리대풍”」(2012. 12. 4), 『연변일보』

- 2012년 재정수입은 16.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공업총생산액은 25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6% 증가, 고정자산투자는 11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2012년 훈춘에 있는 각 세관의 통관 인원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북한 라선시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취안허(圈河) 세관의 통관 인원이 크게 증가함.
- 취안허 세관의 통관인원은 2010년 16만 3천 명에서 2011년 23만 2천 명으로 늘었고, 2012년 들어 7월 말까지 33만 3천명으로 급증함.³¹⁾

3. 한국기업 진출 현황과 시사점

가. 한국기업 진출 현황

- 최근 창지투 개발사업에 따라 이 지역이 동북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하나은행은 2010년 6월 지린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³²⁾
 - 3억 1,6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18%를 매입했는데, 이는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금융회사에 대한 첫 지분투자임.
 - 지린은행은 창춘시 상업은행, 지린시 상업은행, 5개 도시 신용사가 합병한 성급 은행으로 지점 367개, 직원 6,400명, 자본금 78억 위안 규모를 갖고 있음.
 - 하나은행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린은행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매금융을 확대할 계획임.
- 포스코는 2010년 7월 지린성 정부와 창지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포괄적 MOU를 체결함.³³⁾
 - 철강, 자동차, 건설, 토목, 첨단산업 5개 부문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포스코와 지린성 정부는 우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강재가공기지 건설과 훈춘지역의 한국공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함.

31) 「中 연자훈춘-北 나선 정기노선 버스 운행」(2012. 10. 10), 『연합뉴스』.

32) 「하나銀, 中 지린은행 지분 18% 인수...현지영업 박차」(2010. 6. 29), 『아주경제』.

33) 김창도(2012),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정책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중국전문가포럼 조찬세미나 발표자료. (12월 10일)

- 2012년 9월 포스코·현대 혼춘 국제물류단지 개발 1기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2년 10월에는 후이난(海南)현 경제개발구에서 강재가공센터 준공식이 열림.
- 하나대투증권은 2011년 2월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와 금융투자 및 자문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함.³⁴⁾
 - 하나대투증권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와 금융 자문사 선정, 업무 진행 등에 관해 협력하고, 이를 통해 창지투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됨.
- KT&G는 2011년 3월 지린성 정부와 연변 법인 설립 및 공장건설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함.³⁵⁾
 - 중국 측에서 이를 위해 먼저 접근하였으며, KT&G는 성정부로부터 인삼산업발전기금 지원, 재배용지 우선 보장, 기업소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음.
 - 2011년 9월부터 공장이 착공되었으며, 2012년 9월부터 생산이 일부 가동됨.
 - 기술자를 비롯한 핵심인력은 모두 한국에서 들어옴.
 - KT&G 엔지 법인은 현지에서 재배된 인삼을 가공해 제품을 생산하고, 한국 내에서 생산되는 정관장 브랜드와는 별개로 중국인의 취향에 맞게 개발된 새로운 브랜드로 중국에서만 유통할 계획임.
 - 주요 시장은 동북지역이 아닌 남부지역임.

나. 시사점

- 창지투 개발사업은 지방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중국의 중요한 프로젝트임.
- 창지투 개발은 국내적으로는 지린성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동북진흥을 촉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우위를 이용하여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창지투 사업은 동북아지역 물류운송 루트 구축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창지투 지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부상하는 것이 목표임.
- 중국 주도로 진행되는 창지투 지역과 주변국 간 물류협력을 비롯한 경제협력은 중국의 산업기반과 주변 국가의 자원 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두만강 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큼.

34) 「하나대투증권,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와 투자 업무협력 MOU 체결」(2011. 2. 24), 『세계일보』.

35) 현지 출장 기업 인터뷰(2012. 7. 20).

■ 대외 연계형 국내 발전전략으로서 창지투 개발사업은 중국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향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동북진흥전략의 일환으로서 창지투 개발사업은 중국 4세대 지도부의 중점 추진사업인데, 5세대 지도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정부는 2000년대 들어 서부대개발과 함께 동북진흥 등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분배와 균형을 중시하는 5세대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 또한 서부지역에 비해 산업기반이 튼튼한 동북지역의 진흥은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및 환보하이경제권에 이은 중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
- 북한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 또한 각자 수요에 따라 창지투 개발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대외 여건도 양호함.
 -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연계한 중국의 창지투 개발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 대제,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북한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두만강 지역 개발추진은 극동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임.

■ 중국의 창지투 개발사업은 한국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음.

- 남북 경협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는 점, 발전 잠재력이 큰 미개척시장이라는 점,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은 한국의 동북지역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창지투 개발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통일비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한국의 북·중 경협 동참을 통해 남북 경협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동부 연해지역이 임금상승과 인력난, 수출부진 등 투자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에 새로운 투자진출 기회를 제공해줄 것임.
 - 중국정부는 창지투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외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은 한국에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라진항, 자루비노항 등 해상통로를 확보한 창지투 및 동북지역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려는 한국에 도전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연계 인프라 투자와 자원개발 등에 따라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향후 한국은 창지투 지역 진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두만강 지역 개발에 동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창지투 지역은 인프라와 물류환경이 개선되고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함.
 - 투자 유망업종은 자동차, 농산물가공, 물류, 문화 등임.
 - 투자방식은 직접투자도 좋지만 국유경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은행 사례에서 보았듯이 경쟁력을 갖춘 국유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전략도 바람직함.
-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동북아 협력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북·중 접경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통인프라 개발에 동참함으로써 북한경제의 개혁·개방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
 - 동북아공동체 시대에 대비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도 두만강지역 개발에의 참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KIEP**